



2002년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 전망

세계 경제 전망

세계경제는 2001년 하반기부터 회복되겠지만 확전 가능성이 남아 있고 성장을 주도할 부문도 나타나지 않고 있어 회복세는 완만할 전망이다.

지난해 9.11 테러 직후에 실시된 선진 각국 정부의 발빠른 금융완화와 재정확대 정책, 국제금융 협조 등의 성과에 힘입어 세계경제는 심리적 공황 상태에서부터 서서히 탈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나치게 위축된 미국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세계 증시도 안정세를 회복함으로써 조기 경기회복 기대까지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나타나고 있는 경제지표의 호전은 어디까지가 테러의 충격으로부터 정상화 되는 과정인지, 그리고 어디까지가 경기회복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지는 불확실한 부분도 있다.

사실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들의 실업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IT를 비롯한 기업설비 투자 수요도 계속 부진한 상태이다. 따라서 2001년도에 세계경기가 강력한 회복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침체는 과거의 세계경기 침체에 비해 성장을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작지만 회복세는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

1970년대 이후의 세계경기 침체기에는 세계경제 성장률이 연간 베이스로 1%대로 떨어지는 급락세를 나타냈으나 이번 경기침체기에는 2%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뚜렷한 V자형의 회복세는 어려울 전망이며, 2001년 하반기에 가서야 경기회복세가 어느 정도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2002년까지는 90년대 초의 L자형 회복 패턴과 유사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각국 실업률의 상승 추세 속에서 과거에 비해 소비의 경기회복 주도성이 약할 전망이다. IT버블 붕괴의 후유증 때문에 세계적으로 설비투자의 회복도 더딜 것으로 예상돼 전반적으로 성장 회복세가 미약할 것으로 보인다. 90년대 들어 구조조정이 확산되면서 경기침체에 인원감축과 임금삭감이 세계적으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소비 회복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테러와의 전쟁의 남아 있는 불확실성도 경기회복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다만, 미국이 향후 10년간 1조 3,500억 달러의 감세 대책을 마련한 데 이어 테러 이후 각종 재정확대 정책을 추가시키고 있는 데다 단기금리도 1%대로 낮추는 등 정책 측면에서의 효과도 완전히 무시 못할 것이며, 2002년 하반기 경에는 성장세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 이와 같은 미국경기의 회복은 경기부양책을 강화하고 있는 아시아 각국을 비롯한 개도권 경제의 회복세를 점차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EU의 경우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성장세 하락폭이 낮으나 상대적으로 금리 인하나 재정확대 정책이 소극적이며, 2002년 하반기의 성장 회복세는 미약할 전망이다. 일본은 만성적인 내수부진에다 수출경기마저 위축돼 2002년에도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며, 결국 미국이 내년 하반기 이후 세계경기 회복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로 국제금융시장은 안정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나 신용불안, 환율 변동 등은 2002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세계 증시는 9.11 테러 이후의 선진각국 정부의 금융완화 및 정책협조에 힘입어 회복세로 돌아섰다. 선진권을 중심으로 국제금융시장의 이와 같은 안정기조는 2002년 상반기에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테러 발생 이전부터 선진 각국들은 금융완화에 주력해 왔으며, 총통화 증가율은 Y2K 문제를 앞두고 각국 중앙은행들이 통화량을 무제한적으로 방출한 99년 말에서 2000년 초 당시를 훨씬 능가하는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다. 당시의 유동성 방출은 IT경기 호조와 함께 닷컴 주가의 폭등을 가져왔으며, 이를 초과하고 있는 최근의 유동성 공급의 효과도 2002년 국제금융시장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테러 이후 개도권이나 항공사 등 취약한 산업부문으로부터 이탈한 국제자금이 아직도 리스크

에 민감한 상태에 있으며, 개도권 금융불안 등의 국제금융시장 위협 요인도 남아 있다.

아르헨티나의 금융불안 재발이나 테러전쟁의 불확실성도 있어서 국제금융시장이 완전히 정상을 되찾는 데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선진권에서는 항공사 등에 대한 협조유자나 기채 부진이 계속 심각한 문제로 남을 전망이며, 기타 분야에서도 기업 부실화 문제가 부담이 돼 신용평가가 떨어진 기업들의 자금조달은 계속 어려울 전망이다.

개도권의 경우에도 문제시되고 있는 국가의 금융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IMF의 위기 처방이 국제투자자들을 어느 정도 안정시키고 각국에 투자를 회복시켜 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2002년도 국제환율은 상반기까지 엔화의 약세기조가 지속될 전망이다. 경기침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일본은 금융완화와 엔저 유도에 주력하고 있는 데다 아르헨티나나 터키에 이어 일본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강해지면서 1달러당 130엔 대의 엔저가 일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엔저가 일본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결정적 역할을 하지 못할 전망이다. 테다 아시아 경기를 악화시키고 미국 제조업체의 금융 리스크를 상승시키는 효과도 무시 못하고 세계경제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G7의 환율안정화 정책협조 차원에서 엔저의 가속화에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테러와의 전쟁과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미국은 2002년부터 GDP 대비로 1%, 약 1,000억 달러 수준의 재정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악화에 따른 저축 감소 효과는 미국인들의 소비 부진·저축확대로 상쇄되고 있으나 2002년 하반기 이후 미국경기가 회복되면 저축 부족으로 인해 경상수지의 악화가 예상돼 엔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 그리고 최근 둔화되고 있는 EU의 대미투자가 2002년에도 회복하지 못할 경우 미국 달러화의 대유로 환율이 평가절하 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결국 2002년 하반기에는 다시 1달러당 120엔대 후반으로 달러화가 약세 기조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또한, 아시아 경제협력 논의들이 구체화되면서 이를 주도하려는 아시아 국가들의 경쟁도 서서히 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래전부터 아시아 국가들은 상호 발전을 위해 역내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실제적인 경제협력의 틀을 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런데 아시아 금융위기는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담보 상태에 머물러 있던 역내 경제협력 논의에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했다. 제2의 외환위기를 막기 위해 다양한 금융협력 방안이 제기되었고 이것이 통화 스왑협정과 위기시 스탠바이 크레딧 제공이라는 형태로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장관 회담이 정례화되었다. 역내 경제협력 논의도 금융분야에서 무역, 투자, IT기술 분야로 범위가 확산되었다.

2002년에는 그동안 진행되던 논의들이 보다 구체화되면서 역내 경제협력체 논의를 주도하려는 아시아 국가들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 경제협력체 논의는 전통적으로 일본이 주축이었다. 일본은 아시아 통화기금 창설을 추진한 바 있으며 이것이 미국의 반대로 무산된 이후에는 한국, 싱가포르 등 개별 아시아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노력해 왔다. 그 결실로서 2002년에는 한·일 투자협정이 합의되고 일본과 싱가포르의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 한일 투자협정은 양국간 경제교류를 활성화하여 한·일 자유무역의 토대가 되고 나아가 중국까지 포함하는 동북아 자유무역 논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본과 싱가포르의 자유무역협정

은 아시아 최초의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2002년에는 동남아+중국 자유무역지대 방안도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동남아국가들로부터 2010년 내에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에 중국이 참여한다는 합의를 끌어냈다. 필리핀 등 일부 동남아 국가들이 아직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중국의 성장활력을 경제성장에 활용해야 한다는 싱가포르, 태국 등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아시아경제에 대한 중국의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도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동아시아 포럼 등을 제의한 바 있다. 최근에는 태국이 Asian Co-operation Dialogue(ACD)를 제의하여 주목을 끌고 있다. ACD에는 인도, 중국,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태국은 ACD를 통해 인도, 중국, 일본 등을 연결하는 자유무역지대를 추진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으며 2002년초에 첫번째 장관급 회담을 주최할 계획이다.

한국과 태국의 이러한 시도는, 일본과 중국이 서로를 견제하는 상황에서 양쪽을 절충할 수 있는 제3국이 주도하는 경제협력체 논의가 오히려 더 실현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아시아 경제협력체 논의를 자국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아시아 국가들은 전체 수출액의 절반 가량을 역내에 수출하고 있다. 외국인투자도 아시아 국가들의 비중이 상당 수준에 달한다. 보다 안정적인 수출환경을 조성하고 외국인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아시아 국가들이 역내 금융, 무역, 투자 협정

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자연스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선진국 경기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서구 선진국보다 중국, 인도 등 성장활력이 높은 아시아 국가들과 유대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협력체가 단시일 내에 가시화되기는 어렵지만 경제협력 논의가 진전될 수 있는 여건은 과거 어느 때보다 성숙되어 있는 셈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사업환경 개선, 내수 시장 개방 등으로 외국인투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WTO 각료 회담에서 가입 승인을 받고, 12월 11일 WTO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 이에 따라 2002년은 중국의 Post WTO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가 된다.

중국이 WTO 정식 회원국이 되면서 글로벌 스탠더드가 확립되고, 중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체제 전환국으로서의 중국 리스크가 대폭 감소하게 되었다.

더불어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꾸준히 고도 성장을 지속하면서 향후 중국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지배적이 되었다. 중국은 2001년 미국 테러 사태, IT 산업의 부진 등으로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 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에 기반하여 7.4%의 고도 성장을 지속한 것으로 보이는데, 2002년에도 7% 이상의 고도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비하여 회원국으로 요구되는 법률의 정비, 특히 무역관련투자규정(TRIMs)에 부합하기 위해 대규모 법률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고, 제도 투명성을 높이

면서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또 2002년에는 WTO가입으로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중국 내수 시장을 대폭 개방하는 일정이 본격화 되고, 외국기업과 국내기업과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국민 대우 원칙이 적용되면서 외국기업의 사업 환경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WTO 가입으로 중국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증대하고 투자환경 개선과 내수시장 개방이 가속화 되면서 향후 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직접투자는 2001년에도 이미 전년에 비해 20% 이상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투자계약액은 30% 가까이 증가하여 향후 외국인투자 증가를 짐작하게 한다. 더구나 2002년부터는 내수시장이 개방되는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부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이를 이용한 국제 인수합병 형태의 투자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 내 사업환경이 투명해지고 편법이나 꾸안시(關係)의 여지가 줄어들면서 순수 기업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치열한 경쟁환경이 조성될 것이며, 자금과 기술의 우위를 바탕으로 Global Major 기업들의 중국 진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중국 내에서 Global Major 기업들과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가 급증하면서 상대적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나 한국 등 주변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투자는 둔화될 우려가 있으며, 대만이나 한국 등은 국내 제조업 생산 기지가 중국으로 이전하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산업공동화 문제가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

국내 경제 전망

세계수입수요 확대와 국내 설비투자 증대가 가시화되어 본격적인 경기회복으로 이어지려면 내년 3/4분기 경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01년 말부터 시작된 우리경제의 조기 회복론에 대한 논의가 새해 벽두에도 우리경제의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0년 하반기 이후 침체하기 시작한 우리경제가 최근 아프간 전쟁이 수습되는 모습을 보이고 몇 가지 국내의 경제지표들이 개선되면서 이미 회복국면에 들어선 것이 아니냐 하는 희망적인 낙관론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3/4분기 GDP 성장률이 가장 큰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3/4분기 경제성장률이 1.8%로 당초 예상보다 높게 나타나고 계절적인 요인을 제거한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1.2%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9.11테러 이후 468p까지 하락했던 주가가 한 때 704p까지 상승하고 1달러 이하까지 떨어졌던 반도체(128M DRAM 기준)가격이 2달러 가까이 회복된 것도 낙관론의 배경이 되고 있다.

그렇지만 몇 가지 개선된 지표들에 근거하여 조기 회복될 것이라고 낙관만 하기에는 아직 불투명한 점들이 남아 있다. 3/4분기 성장률 실적에서 나타났듯이 재정지출 확대에 의한 소비와 건설투자가 현재는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지만 내수 만으로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수출과 설비투자가 본격적으로 회복되어야 하지만 환율이 불안정하고 투자주도 산업이 아직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 성장을 이끌어가야 할 수요부문들이 아직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경제의 동시불황 탈출도 아직은 쉽지 않아 보인다. 테러와의 전쟁이 아프간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고 개도국들의 금융불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수출여건이 밝지만은 않다.

반도체 가격 움직임도 아직은 불안하다고 할 수 있다. IT산업의 재고조정이 아직은 마무리되었다고 할 수 없고 IT산업의 가동률도 60% 대에 불과하다. IT경기의 사이클 상 내년 하반기부터는 수요가 다소 살아날 것으로 보이나 본격적인 IT산업의 투자가 재개되는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인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주가는 실물경제의 뒷받침 없이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주가가 오르더라도 소비와 설비투자를 통해 경기를 부추기는 데까지는 2~3분기의 시차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더 이상 경기가 악화될 가능성은 낮아졌으나 그렇다고 우리경제가 이미 경기저점을 통과해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들어섰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볼 수 있다. 세계수입수요 확대와 국내 설비투자 증대가 가시화되어 본격적인 경기회복으로 이어지려면 2002년 3/4분기 경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선부른 낙관론에 빠져 정부가 경기상황에 대한 대응을 게을리 하거나 기업들이 구조조정 노력을 등한시한다면 내년에도 금년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하기 어렵다.

2002년에 있을 두 차례의 선거와 월드컵, 아시안게임 개최 등은 국내경기의 움직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2002년에 실시되는 선거는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 정부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02년에 두 차례의 선거가 겹치면서 경제정책의 혼란이 초래될 수 있으며 일관성 있는 정책 집행이나 기존 정책의 마무리가 어려워 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기업경영환경에 불확실성을 초래하여 기업의 설비투자욕을 더욱 위축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정치 일정은 경기확장기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2년 가까이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기업의 설비투자욕과 산업생산활력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경기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선거기간 전후로 물가상승률은 평균보다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산업생산은 선거 이후에 다소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온 측면이 있다. 2002년 물가상승률은 2%대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선거로 인해 물가가 불안해질 경우 이는 가계의 실질구매력 감소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내수 위축으로 연결될 것이다. 그 동안 소비가 경기급락을 막는 버팀목이 되어 왔음을 고려해 볼 때 선거로 인한 물가상승은 경제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경기회복에 악재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와 아시안게임이라는 국제 스포츠행사가 개최됨에 따라 여기서 파급되는 거시경제적 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월드컵 축구대회는 적지 않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국내경제의 조기회복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월드컵 개최의 경제적 효과로는 우선 경기장 건설 등에 투입된 투자지출을 통한 경기자극효과가 있을 것이지만 경기장 건설은 거의 마무리 되었으므로 추가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대회개최기간 중 임시직과 일용직을 중심으로 상당한 고용창출이 발생할 것이며, 무엇보다 해외관광객의 증가로 인한 여행수지의 흑

자는 내년 경상수지 개선에 일조할 것이다. 수출둔화로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경상수지가 여행수지 흑자에 의해 어느 정도 방어된다면 이는 우리경제의 대외건전성 유지에 큰 도움이 되며 외국인 투자 유출을 억제하는 간접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해외관광객의 소비지출을 통한 국내소비촉진에 일조하는 등 소비경로를 통해서도 실물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시적인 차원 뿐만 아니라 월드컵은 특정 산업의 성장에도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우선 증가된 관광객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광자원에 대한 홍보로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다. 낙후분야라고 할 수 있었던 스포츠 산업 및 스포츠 마케팅 산업의 성장도 예상된다. 기업과 더욱 밀접하게 결합하여 스포츠가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올림픽 이후 다시 한 번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 경기가 지방도시로 분산개최 되어 지역홍보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정책 혼란이 가중된다면 거시경제에 악영향이 발생할 수도 있겠으나 월드컵과 같은 대규모 국제행사가 초래하는 경제적 이득으로 인해 전체적으로는 내년의 경제외적 이벤트가 경기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할 것이다.

중국의 월드컵 본선 경기가 한국에서 개최됨에 따라 2002년은 한국과 중국 사이의 대중적(大衆的) 교류가 시작되는 원년이 될 전망이다.

2001년 중국에서는 '韓流'가 유행하고, 한국에서는 이른바 '차이나 쇼크'가 제기되는 등 양국에서 서로에 대한 대중적 관심과 이해 수준이 크게 높아졌다. 여기에다 2002년에는 월드컵을 전후하여 최대 10만

명의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1년의 차이나 쇼크에 이어 2002년에는 차이나즈(中國人) 쇼크가 한국을 엄습할 전망이다.

중국에서 축구는 이른바 치우미(球迷)라 부르는 열성팬만 8,000만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구가하는 스포츠이다. 때문에 월드컵을 앞두고 중국 매체들은 대대적으로 한국의 주요 경기장 및 주변 관광자원을 보도할 계획이고 한국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관한 소개도 크게 늘어날 것이다.

한편 지난 2001년 11월 23일, 중국 공안국(公安局)은 2002년부터는 초청장이 없더라도 신분증만 제출하면 여권을 발급하겠다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중국인의 해외 여행 문호가 크게 개방된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빠른 소득 증대, 2002년 월드컵 본선 경기, 중국인의 해외여행 자유화가 서로 상승 작용을 일으킨다면 2002년 이후 중국에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규모로 한국 관광 붐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중국 평균보다 소득이 3~4배나 높은 중국의 동부 연해 지역 도시 주민들에게는 한국이 거리상으로는 가격 면에서나 가장 매력적인 해외여행 후보지이다.

이미 2001년 한국 방문객 중 중국인은 일본에 이

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2001년 10월까지 그 수는 40만 6천명에 달해 연말에는 45만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체 외국 방문객의 9.3%에 해당하며, 97년과 비교하면 수적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또 그 내용 면에서도 관광목적의 방문자 수가 크게 늘어 2001년부터는 중국 교포의 친지 방문 등 기타 목적의 방문을 앞지르기 시작했다.

관광객 등 민간인들의 대량 상호 왕래를 계기로 한중 교류는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을 위주로 한 경제적 교류나 '韓流' 등과 같은 일방적 진출 단계에서 전면적인 大衆的 상호 교류 단계로 한 단계 비약할 전망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중국 관광객 급증, 중국 기업의 한국 진출, 중국 대중 문화의 확산 등 새로운 양상이 경제, 사회, 문화 각 방면에서 큰 충격과 기회를 주게 될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한국에 세계 최초로 해외 중국문화원을 개설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同仁堂(한약)', '奎聚德(베이징덕)'과 같이 비교적 알려진 중국 브랜드의 한국 상륙, 중국 기업의 한국 기업 인수, '중국식' 중국 요리의 확산, 고전물이 아닌 현대물 중국 TV 드라마 방영, 중국어 교육 및 중국 유학 급증 등 새로운 변화가 예상된다. 또한 이 과정에서 그 동안 마땅한 대접을 받지 못해온 중국 교포(조선족)들이나 재한 화교들 또한 합당한 역할을 찾을 수 있을 전망이다.

본고는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센터에서 발표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음.